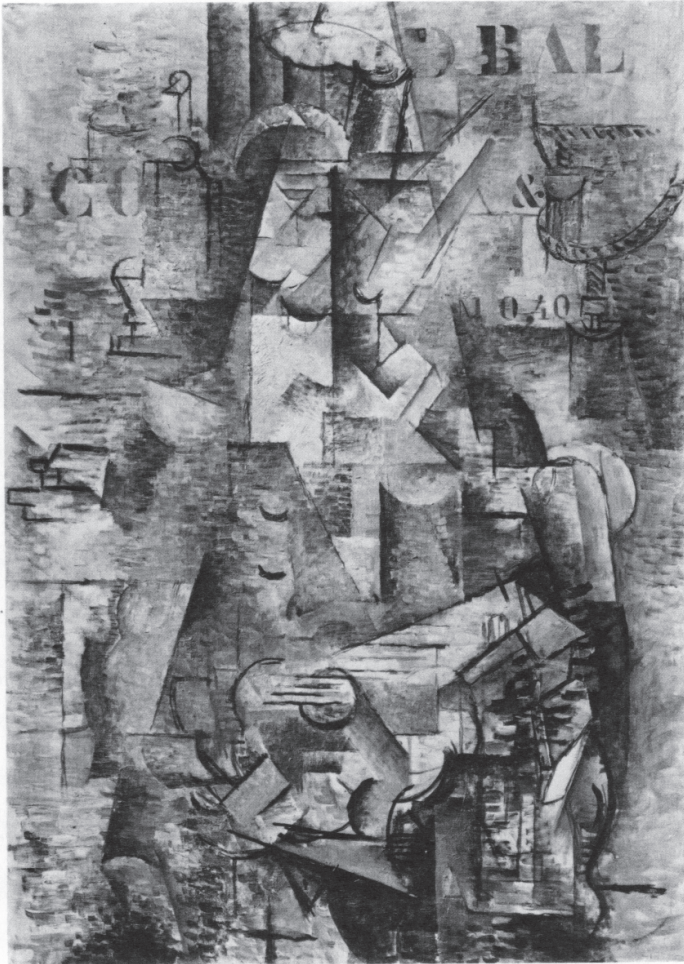


project description

representing Urban Public



Georges Braque, The Portuguese. 1911-1912

public, common wealth & Commune

Urban structure 속의 또 하나의 건축을 생각해보자. 도시가 우리 삶의 터전이 된 이후, 우리가 흔히 알고 사는 도시의 존재가 우리에게 부여하고 있는 많은 기능들,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열거하는 과정에 들어간다. 그 중에서, 한 도시를 상징하고 또 도시/지역성을 주장하는 공공성의 건축물 (public establishments)의 의미를 살펴본다. 건축이 인간 삶을 담는 그릇으로써 형태를 주장하고 그것들의 조합으로 도시문화를 만들어낸지 이미 오랜 세월이 있었다. 그러나 예나 지금이나 국가와 사회 체계의 운영조직과 그 기능을 담는 그릇인 공공 건축은 가장 존엄한 존재였으며, 당시 사회조직의 역량과 문화를 나타내었다. 산업혁명 이후 인류가 겪은 여러 가지 변화와 자본주의 사회구조는 도시 공공 건축물의 의미를 새롭게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도시의 상징성도 새로 태어나고 있다.

sense of places & symbol of civic status

지금의 도시는 사공(時空)이 겹쳐지고(Time-space compression) 다양한 욕구들이 소화되어야 하며 삶의 터전뿐만 아닌 사용자의 미래 꿈을 부여해 줄 수 있는 생활 무대임을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위 모든 것들, 또한 그 이상의 것들이 여러 가지로 제한된 대지 위에, 독특한 환경과 여건, 그리고 역사의 기록, 시민들의 기억과 공존하며 실현되어야 하며 실제 실행에 있어서도 복합적인 내용들이 창의력을 바탕으로 압축되어 효율적으로 배치되어야 함을 뜻한다. 이러한 임무를 적극적으로 실현할수록 더 많은 건축적 주장과 여유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 우리에게 주어진 대지에는 다양한 주변 환경적 요구사항들(contextual requirements)과 장소성이 이미 존재함을 의미하고 있고, 과거로부터 지금까지의 한 장소의 상징성과 장소성의 의미 등 해당 대지에 존재하는 모든 건축 구성성분들을 찾아 고찰해야 한다.

programming exercise

여러 가지 건축적 주장이 있을 수 있다. 복합적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매우 복잡해지기도 하며, 여러 경합들을 뚜렷한 현상으로 정돈하여 단순화시킬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흔히 위 두 결과 중 뚜렷하게 양극화된 건축 주장들 사이에서 쉽게 결론짓지 못하게 된다.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임무는 바로 우리가 지어내야 하는 건축은 대지위에 존재한다는 것과, 그 대지에 발견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셀 수 없이 많은 상황들(conditions)이 있고, 그것들의 이해를 바탕으로 새로운 역할과 기능을 그 대지에 부여한다는 사실이다. 여기에, 우리가 주장해야 하는 프로그램의 이해와 상징적 공공시설로서의 존재감 및 장소성(sense of places)을 주장하고 가장 창의적이고 이상적인 개념을 도시맥락위에 얹어내고 계획의 근거로 한다.

execution

지정된 대지(site), 그리고 기존 구조물 프로젝트로 본다. 주어진 조건들(program)이 새로 건축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곧 이미 유기적인 내용을 보유하고 있는 지금의 사이트를 재해석하여 그 일대가 새로우면서도 합리적으로 바뀌게 됨을 의미한다. 건축이 갖고 있는 잠재력은 실제 탐구해봄으로서 더욱 확장되기 마련이므로 앞으로의 모든 해법들은 놀랍도록 유연할 수 있고, 자신의 주장이 명중하게 되면 그 형태는 순식간에 고체화(solidify)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주어진 구조물의 의미를 새로운 시설 개념의 시작으로 삼는 '리모델링 설계'에 대하여 정의내리고 그것의 가능성을 설계작업의 발판으로 삼아야 한다.

주어진 조건들(program)로서, 주어진 대지에 미래지향적인 리모델링되어 증축된 새로운 시청사 업무시설을 필요로 하고 있다. 새로운 계획안은 기존의 프로그램들을 새롭게 해석하고 재조합하여 일대의 도심 기능을 극대화하고 주변 시민들에게 이상적인 공간환경을 제공하며, 공공 건축물로서 그에 기대되는 도시성과 장소성, 그리고 상징성을 주장할 수 있어야 한다.

역사문화경관의 회복을 위한 공공한옥

전통건축 백소훈+이원욱 스튜디오



역사도시의 역사경관을 회복하기 위한 건축적 실험

약화되어가는 역사도시의 조직

근대로의 전환 과정에서 발생한 도시와 건축 패러다임의 변화는 역사도시에 혼란을 가져왔다. 수백년간 유지되어 온 도시조직은 근대적 필지정리로 인해 해체되었고, 목조의 나지막한 건축들로 구성되던 거리의 경관에는 벽돌, 콘크리트, 유리, 철 등의 재료와 그에 맞는 새로운 조형언어의 건축들이 자리 잡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불가항력적이고 자연스러운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성찰이 없는 변화는 역사도시의 정체성을 급격히 약화시키고 있으며, 현대적으로 정비되지 않은 도시조직을 기반으로 우후죽순 들어서는 현대건축들은 조화와 질서를 이루지 못한다.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역사도시 수원화성

수원 화성은 조선 후기 계획된 성곽도시로서 세계유산으로 지정될 만큼 뛰어난 가치를 갖고 있다. 도시는 엄격한 법규와 계획에 의해 관리되고 있으며, 수원시는 이 성곽도시가 세계유산의 위상에 걸 맞는 역사적 도시경관을 유지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건축설계4의 사이트는 바로 수원의 역사적 중심인 화성행궁 앞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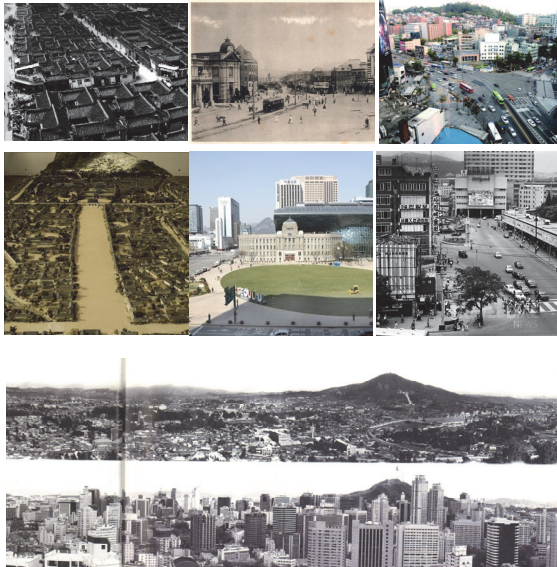
근현대의 변화를 수용하는 동시에 전통적 역사경관을 회복하기 위한 건축적 제안_공공한옥

건축설계4에서 전통건축스튜디오는 역사도시 내 낙후된 문화회관을 리모델링을 통해 문화시설을 포함한 복합 도서관으로 탈바꿈시키는 설계프로젝트를 수행한다. 리모델링되는 건축의 형식과 구조는 역사도시의 **역사문화경관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전통한옥의 형식과 구조**를 위주로 하되 기존 문화회관 및 주변환경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부분적으로 현대적 건축형식과 구조를 사용할 수 있다. 또한 공공건축으로서 한옥에서 **무장애 설계**를 어떻게 실현시킬 것인지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 건축설계3에서 소형의 단순한 한옥구조를 활용하여 비교적 단순한 건축프로그램을 풀어냈다면, 건축설계4에서는 대형복합시설의 복잡한 건축프로그램을 보다 복잡하고 규모가 큰 한옥구조를 활용하여 담아내는 과정을 경험한다.
- 증개축의 방향은 역사도시가 요구하는 훼손된 역사문화경관의 회복에 두어야 하지만, 이미 상당부분 현대화된 기존건축 및 주변환경과의 관계 역시 고려되어야 한다. 이러한 모순된 상황의 복잡한 층차를 인식하고 건축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수업의 방향]

서울에 대한 역사적, 지리적, 정치적, 도시적, 건축적 의미와 관계에 대한 조사, 분석을 통해 대안을 제시하고, 이 대안을 토의 발전시키며 리노베이션 프로젝트를 수행한다



[진행방향]

1. 사례조사

-유사사례 조사 분석 후 증축설계
(도시 분석, 디자인컨셉, 평면 및 입 단면..etc)

2. Site 및 기존 건축물 조사 분석

-도면

-역사적, 지리적, 도시적 의미

-프로그램

-구조 및 재료

3. 보존/철거/신축 아이디어 및 프로그램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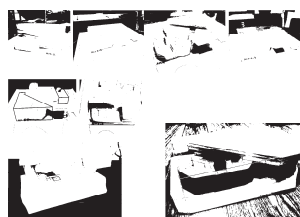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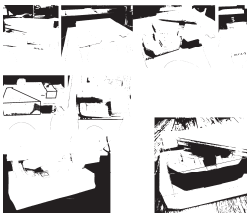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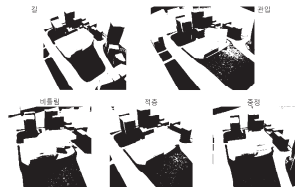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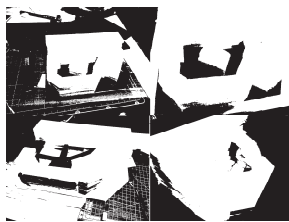
***4. 대안모형(ALT Model) 작업**

-모형을 통한 디자인 컨셉 표현

5. 리모델링의 이해

6. 2021년의 건축적 사회적 화두 접목

7. 현상설계의 이해



[수업의 목적]

도시는 태어나고 발전을 누리다가 하면 쇠퇴하여 사라지기도 한다. 하나의 생명체처럼 영고성쇠를 겪는 것이다.

<오래된서울_최종현, 김창희지음 에서 발췌>

서울이라는 도시는 600년 혹은 2,000년의 역사를 가진 도시로 일컬어진다. 이 서울이라는 역사도시에 사이트를 정하고 그 곳에 남아있는 건축물에, 장소성에 기반한 설계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이 설계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점은 각자가 모은 파편화된 지식과 정보를 하나의 연관된 스토리로 연결하는 능력을 키우는데 있으며, 그 방법론적인 도구로 이 스튜디오에서는 ALT 모형을 이용한다. ALT모형을 이용하여 다양한 재료와 컬러로, 스토리를 표현하며, 컨셉 초기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ALT모형을 만들어본다. ALT모형 중 한 가지 ALT를 결정하고 발전과정을 통해 개념을 전개시킨다. 가능한 모든 가능성을 ALT모형을 통해 초기에 확인해 봄으로서 발전단계에서 진행하던 설계안을 다시 초기상태로 돌아와 수정하는 오류를 최소화 하게 된다.

도심 속 사이트에서 주어진 정보의 퍼즐 속에서 기존건축물과 새로운 건축물의 배치와 프로그램의 설정을 통해 리노베이션 건축설계의 방법론을 경험하고 결과를 만들어내는데 있다.

2021 Arch 4 Studio Description

CIVIC & PUBLIC SPACE REVISITED - SEOUL CITY HALL EXPANSION (OLD AND NEW)

In the past few years, the norm that we believed in became no longer normal within our life and surrounding. This semester, we will visit and study the public spaces, architectures, and parks to understand the social needs and provide for the fast-changing environment.

Objective

This semester's project is to expand and modify the Seoul City Hall & the Seoul Plaza. The Seoul City Hall and its site have had many layers of changes throughout history. We, as a studio, will revisit and reimagine the Seoul City Hall and the Seoul Plaza by reinterpreting the needs of the users and its surroundings to provide for the fast-changing life. This expansion and modification project will be based on the layout of the city hall from 2007, replacing the existing new city hall building, constructed in 2012. The new expansion should improve the quality of the public spaces and working spaces to continue to stand as the city's landmark.

Programs

Each student will carefully study the existing city hall building to reorganize and possibly add the new programs to the expansion.

- Add a new building or buildings within the existing Seoul City Hall site to provide more space and a higher quality environment to the workers and the public visitors.
- The Seoul City Hall and the public library are the two main programs, and each student may develop and add additional programs.
- Provide new landscape/hardscape and traffic & pedestrian circulation. Public transportation connections should be studied together.
- Provide a new underground parking space.

건축설계4 강의계획서

2021-2 옥태범 스튜디오

서울시청 증축 및 리모델링

현재의 서울도서관은 1926년 일제강점기에 경성부 청사¹⁾로 준공되어 1945년 광복 후에도 계속 서울시 청사로 사용되었다. 거듭되던 증축으로도 필요한 면적을 충족시킬 수 없게 되자 서울시는 2008년에 신청사 건설을 착수하게 되었고 2012년 8월에 현재의 청사(유결+삼성건설)가 준공되었다.

본 스튜디오에서는 서울시청 증축 및 리모델링 작업을 아래 '대상지' 그림처럼 현 청사 대지에 2008년 시점으로 진행한다. 우선 **뒷편으로 무분별하게 증축된 건물들을 철거하여 원 청사만 남긴 후** 새로운 청사를 증축함으로써, 역사도시 서울의 시청사는 복구된²⁾ 구관과 신관의 조합으로 작동하기를 기대한다.

(이후 용어 통일: 구청사 대신 "구관", 신청사 대신 "신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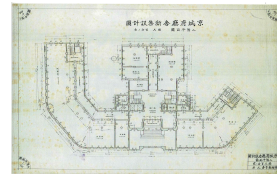
프로그램 구성은 설계자가 판단하되 시민을 위한 편의시설이나 휴게공간 등은 가급적 1층, 지하1층 그리고 구관으로 한정하고, 신관의 대부분은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되는 보안구역이 설정된 전문적인 업무공간으로 설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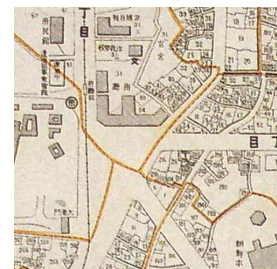
대상지 (2012대지+2008건물)



경성부 청사 (1926)



1층 평면 (19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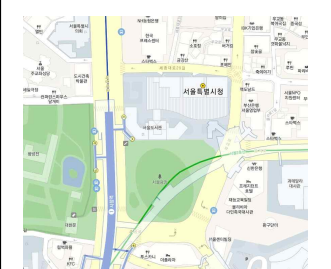
인근 지도 (1940년대)



서울시 청사 (2008)



유결+삼성건설 (2012)



인근 지도 (2012년)

1) 구 경성부 청사 건물은 2003년에 등록문화재로 지정되었다.

등록문화재는 지정문화재 다음 등급으로서 근·현대 시기에 형성된 시설물 중 보존 및 활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대상이 이에 해당된다. 국보나 보물은 지정문화재 중에서도 최상위 등급인 국가지정문화재 중 유형문화재에 해당된다.

2) 문화재의 역사보존용역(Historic Preservation Service)은 보존Preservation > 복원Restoration > 복구Rehabilitation > 재건Reconstruction 등으로 구분되는데, 앞의 것일수록 원형 유지에 가깝고 뒤로 갈수록 덧댐 작업이 많다.

보존에 해당되는 예로는 송례문을 들 수 있고, 복원은 특정시점의 건물 모습을 정확히 묘사하기 위해 부적절한 덧댐 부위는 제거하고 사라진 형상을 재구축하는 작업이다. 복구는 실제 사용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재건은 망실된 역사적 건축물을 특정 시기의 모습대로 재현하는 것이다.

KEYWORDS of LEEJONGHWAN STUDIO

명지대학교 건축대학 3학년 2학기 건축설계 담당교수 이종환 abkuabku@gmail.com 010.2227.6965

SITE

대지 및 주변의 현황에 대한 조사와 다각도의 이해는 건축 및 장소를 만들어내는 시작과 끝맺음이다. 현황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구상을 시작하고, 모든 판단의 단계마다 주변과 현황에 근거해서 결정한다.

CITY HALL (Municipal Office)

시청이란 무엇인지, 무엇이어야 하는지의 고민과 나름의 해석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청사로서의 상징성, 업무공간으로서의 효율성, 공공시설물로서의 이타성 등이 조화롭게 고민되어 어떤 시대정신을 담은 청사가 되어야 할지를 제시해본다.

PROGRAMMING

사용자(User)를 위한 건물인가, 방문자(Visitor)를 위한 건물인가.

기능적 program study를 바탕으로 하되, 방문자를 위한 새로운 관계형성의 제시가 필요할 것이다.

OLD & NEW

구청사와 신청사, 고궁과 현대식 건물, 자연과 도시 그리고 과거와 미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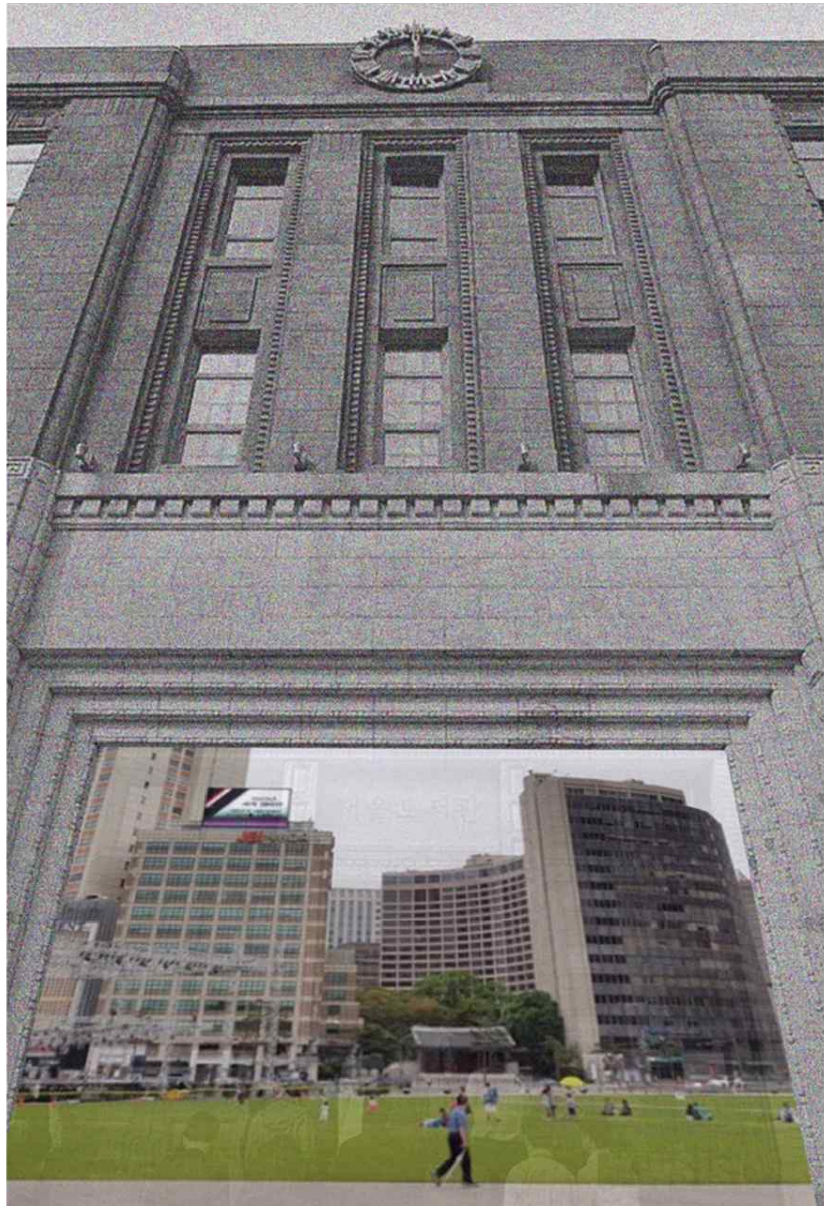
옛 것이 어떻게 새로움을 품고, 새로움이 어떻게 과거와 공존되는지, 그 어우러짐을 통해 어떤 미래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고민해본다.

WORKSPACE AS A DAILY LIFE

일상로서의 업무공간을 생각하고,

일상로서의 시청사를 제시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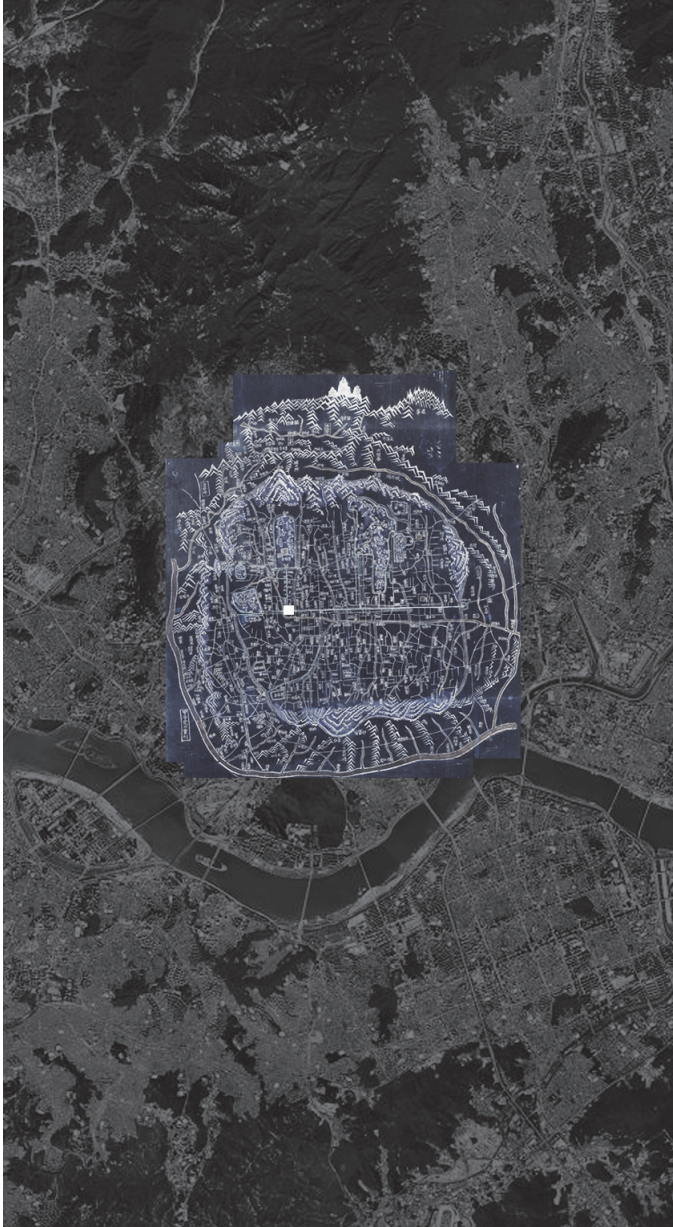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새로움을 스며들게 해주는 시청사를 모색해본다.



시청 속으로 확장되는 광장: 이형래, 2018

project description

representing Urban Public



.public, common wealth & Commune

Urban structure & fabric 속의 또 하나의 건축을 생각해보자. 도시가 우리 삶의 터전이 된 이후, 우리가 흔히 잊고 사는 도시의 존재가 우리에게 부여하고 있는 많은 기능들,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열거하는 과정에 들어간다. 그 중에서 한 도시를 상징하고 또 도시/지역성을 주장하는 공공성의 건축물(public establishments)의 의미를 살펴본다. 건축이 인간 삶을 담는 그릇으로써 형태를 주장하고 그것들의 조합으로 도시문화를 만들어낸지 이미 오랜 세월이 흘렀다. 그러나 예나 지금이나 국가와 사회 체계의 운영조직과 그 기능을 담는 그릇인 공공 건축은 가장 존엄한 존재였으며, 당시 사회조직의 역량과 문화를 나타내었다. 산업혁명 이후 인류가 겪은 여러 가지 변화와 자본주의 사회구조는 도시에서 공공 건축물의 의미를 새롭게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으며 변화하는 시대에 공공성의 의미와 공공 건축물이 가져야하는 공간의 가치를 다양한 시각에서 정의함으로써 도시의 상징성도 새로 태어나고 있다.

.sense of places & symbol of civic status

도시는 시·공(時空)이 겹쳐지고(Time-space compression) 다양한 욕구들이 소화되고 소비되어야 하며 삶의 터전뿐만 아닌 사용자의 미래 꿈을 부여해 줄 수 있는 생활 무대임을 우리들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이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위에서 언급한 모든 것들 혹은 그 이상의 것들이 여러 가지로 제한된 대지 위에 독특한 환경과 여건, 역사적 기록 그리고 시민들의 기억과 공존하며 실현되어야 하며 실제 계획에 있어서도 복합적인 내용들이 창의력을 바탕으로 압축되어 효율적으로 배치되어야 함을 뜻한다. 이러한 임무를 적극적으로 실현할수록 더 많은 건축적 주장과 여유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 더불어 우리가 주장해야하는 가시적인 건축공간에서 서로간의 관계 맺기를 위한 반복적인 크고 작은 고민들은 우리가 직면해 있는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생각지 못한 새로운 이야기를 발견하게 된다. 우리에게 주어진 대지에는 다양한 환경적 요구사항들(contextual requirements)과 장소성이 이미 존재함을 잊지 말아야하고, 과거로부터 지금까지의 상징성과 장소성의 역할, 의미 등 해당 대지에 모든 건축 구성 요소들을 고려해야 한다.

.programming exercise

주어진 대지에서 각기 다른 여러 건축적 주장이 있을 수 있다. 복합적인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매우 복잡해지기도 하며, 각각의 요소들을 명확한 근거나 논리에 의해 단순화 시킬 수도 있지만 대부분 어느 한 방향으로 건축적 주장을 결론짓기 못하게 된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지어내야하는 건축은 대지 위에 존재한다는 것과 그 대지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상황들이 있고, 그것들의 이해를 바탕으로 새로운 역할과 기능을 부여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프로그램의 이해와 공공시설로서의 상징적 존재감 및 장소성을 주장하고, 가장 창의적이고 이상적인 개념을 도시 맥락을 기반으로 한 계획의 근거여야 한다.

.execution

지정된 대지(site), 그리고 기존 구조물 프로젝트로 본다. 주어진 조건들(program)이 새로운 공간 구조를 가지면서 건축되어야 하는데, 이미 가지고 있는 유기적인 내용을 보유하고 있는 기존 구조물과 사이트를 재해석하여 그 일대가 새로우면서도 합리적으로 바뀌게 됨을 의미한다. 건축이 갖고 있는 잠재력을 실제 탐구해봄으로서 더욱 확장되기 마련이므로 자신이 주장하는 건축적 개념과 공간에 대한 해법이 유연할 수 있고, 그것이 적중하게 되면 그 형태는 쉽게 구체화 될 것이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도시의 특질을 이해하고, 그 다양성과 복잡성을 반영해야하는 가운데 모든 건축적 주장들이 함축적이어야 하고, 영향력 있는 집약된 모습으로 구체화 되어야 우리의 도시조직은 견고해질 수 있다는 사실이다. 또한 주어진 기존 구조물의 의미를 이해하고, 새롭게 변경 될 '리모델링 설계'에 대하여 정의내리고 그 가능성을 설계작업의 발판으로 삼아야한다.

주어진 조건들(site, program, existing facility)로서 주어진 대지에 미래지향적인 증축된 새로운 시청사 업무시설을 필요로 하고 있다. 새로운 계획안은 기존 건축물과 기존 프로그램들을 새롭게 재해석하고 조합하는 것이다. 공공성의 건축물로서 도심 기능을 극대화 하고 시민들에게 이상적인 공간을 제공할 수 있어야하며, 그로 인해 기대되는 도시성과 지역성, 그리고 상징성을 주장할 수 있어야 한다.